

- 주요 뉴스: 미국 10월 소비 및 물가지표, 고물가 여건에서도 경제성장 기대를 강화
 - 11월 FOMC 의사록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
 - ECB 이사,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으면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 유지가 타당
 - 독일 11월 Ifo 경기업황자수, 5개월 연속 하락.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등이 원인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양호한 소비 및 고용지표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하락[-3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
유로 Stoxx600 지수는 통신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 매수 유입 등이 배경
독일은 11월 Ifo 경기업황자수 부진 등으로 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9.9원, +2.4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1/24일	11/23일	전일대비			11/24일	11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01.5	4,690.7	0.23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4%	1.67%	-3bp
	유럽	479.69	479.25	0.09%		독일	-0.23%	-0.22%	-1bp
	중국	3,592.7	3,589.1	0.10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303	휴장	-1.58%		중국	49bp	49bp	0bp
	한국	2,994.3	2,997.3	-0.10%	위험 지표	EMBI+	-	387	-
환율	달러지수	96.84	96.49	0.36%		VIX	18.58	19.38	-4.13%
	유로화	1.1201	1.1248	-0.42%		WTI유	78.39	78.50	-0.14%
	엔화	115.41	115.14	-0.23%	원자재	구리	447.0	442.4	1.05%
	위안화	6.3924	6.3920	-0.01%		금	1,789.4	1,789.2	0.01%
	원화	1,186.5	1,189.7	0.27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0월 소비 및 물가지표, 고물가 여건에서도 경제성장 기대를 강화

- 10월 개인소비는 전월비 1.3% 증가하여 전월(0.6%) 및 예상치(0.9%) 모두 상회.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견조한 소비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4/4분기 성장률이 3/4분기에 비해 상승할 전망. JPMorgan Chase는 4/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(5%→7%)
- 10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는 전년동월비 5.0% 상승하여 199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. 연준이 물가 수준을 측정할 때 참고 지표로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도 전년동월비 4.1% 올라 1990년 12월 이후 최고치
-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강력한 소비는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11월 FOMC 의사록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

- 다수의 위원들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,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하고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-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,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시각도 표명. 또한 매월 150억달러의 자산매입 축소를 지지했으나, 일부는 자산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
- 아울러 주요 경제 지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공급 차질, 인플레이션 수준, 노동시장 등의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. 일부 위원은 공급 병목이 2022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

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경제 여건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 변경 가능

- 데일리 총재는 고물가,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된다면 테이퍼링을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해야 하며, 금리인상은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

■ 미국 3/4분기 성장률(수정치), 2.1%로 속보치(2.0%) 대비 소폭 상향

- 이번 결과는 2/4분기(6.7%) 성장률 대비 부진한데, 이는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, 공급 병목, 가파른 물가 상승 등에 기인

- 미국 1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20만건 하회로 52년 만에 최저 수준
 - 노동부에 따르면, 해당 건수는 19.9만건을 기록. 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는 이번 결과가 일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, 고용이 양호하다는 것은 분명하며, 이에 금년 말 경제는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발언
- ECB 이사,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으면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 유지가 타당
 - 파네타 이사는 코로나 19 영향이 지속되는 한 자산매입을 통해 낮은 수준의 차입비용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. 또한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매입 축소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
 - 슈나벨 이사는 역내 물가상승 압력이 높으나, 경제 성장이 양호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.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예정대로 내년 3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을 종료하지만, 이후 재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
- 독일 11월 Ifo 경기업황지수, 5개월 연속 하락.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등이 원인
 - 해당 지수는 96.5로 전월(97.7) 및 예상치(96.6) 대비 부진. Ifo의 Clemens Fuest는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19 감염 증가 등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진단
-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, 금융기관에 공급망 지원 강화 등을 촉구
 - 공급망 지원 이외에도 첨단 제조업체, 자립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권고. 아울러 기업들이 주력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-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24 현지시각 기준)
 - 미국 10월 내구재 수주(전월비): -0.5%, 9월(-0.3%), 예상치(0.2%)
 - 미국 10월 신규주택판매(만건, 연환산): 74.5, 9월(74.2), 예상치(80)
 -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(확정치): 67.4, 10월(66.8), 속보치(66.9)
- 주요 경제 이벤트(11/25 현지시각 기준)
 - ECB 라가르드 총재 및 슈나벨 이사 강연, 독일 3/4분기 성장률
 -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, 일본 9월 경기선행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주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, 공허한 구두개입보다 근거 제시가 중요 - 블룸버그**
(The King Canute Theory of Inflation)
 - 세계 주요국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만 중앙은행들은 심리가 물가상승을 유도한다고 가정하여 상당기간 제로금리 유지라는 포워드 가이드를 제시. 그러나 단순한 예측이 아닌, 통화량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
 - 중앙은행의 단순한 구두개입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는 없으며, 물가상승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당연한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. 중앙은행은 카누트 왕의 비유처럼 어느 누구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을 상기할 필요
- **OPEC의 석유정책,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반영할 가능성 - WSJ**
(OPEC Weighs Shift in Oil Policy After Crude Release)
 - 미국은 일부 국가들과 전략비축유 방출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의 하락을 유도. OPEC은 70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이 원유시장 수급 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, 현행 월별 감산 완화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 발신
 - 또한 유럽의 코로나 19 재확산 및 경제 재봉쇄는 석유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. 이에 다음 주 개최되는 OPEC+ 회의에서 전략비축유 방출로 인한 공급 초과와 잠재적 위험 대응을 위해 기존 석유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
- **중국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, 규제완화 등으로 수익 증가 기대 확대 - Financial Times**
(Global banks have bet on 'big bang' in China but will it pay off?)
- **영란은행, 과거 사례를 고려할 경우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은 편 - 블룸버그**
(Will U.K. Interest Rates Rise in December? History Suggests No)
- **터키의 리라화 급락, 부채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 위기 초래할 소지 - Financial Times**
(What the lira collapse means for Turkey's economy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